

Photo Album



제14대 고영선 이사장 취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6월 17일(수)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고영선 전 대한생명보험 사장을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고영선 이사장은 1944년 서울출생으로 중등고등학교 및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신한은행 전무이사, 신한생명 대표이사 부회장, 대한생명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14대 고영선 이사장의 취임식은 6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화보협회 1층 대강당에서 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취임식에서 고영선 이사장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도경영, △고객경영, △자율경영, △신뢰경영이라는 4가지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 밝히고,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열정,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여 협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화재보험협회 가족의 일원으로서 협회 발전을 위해 30여년 경영의 지혜와 열정을 모두 쏟아 붓고자 한다.”며, “2009년 오늘이 협회의 재도약이 시작된 날로 기억되도록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창립 36주년 맞아

특수건물에 대한 다양한 화재예방활동을 통해, 건물 화재안전도 향상과 함께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5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협회 1층 대강당에서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직원들은 글로벌 수준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재난의 예방과 복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협회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신성장 엔진의 개발과 조직효율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13대 제정무 이사장 이임식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6월 22일(월) 오후 4시 협회 1층 대강당에서 제13대 제정무 이사장의 이임식을 개최하고, 제정무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제정무 이사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신임 이사장과 함께 전 임직원이 지혜를 모아 밝고 희망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미래를 설계할 것”을 당부하고, 손해보험사에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와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